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안산톡톡'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안산의 일출

## 03 특집

### 좋은 정책 1번가

신경 쓸 일 참 많은 취업 '바늘구멍' 뚫기.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안산시 청년 취업·일자리 정책을 한 눈에 보고 필요한 정책은 꼭 지원받도록 하자.

## 07 인터뷰

###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석진욱 감독

팀 창단멤버로 수석코치 활약하던 석진욱 감독.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는 석 감독으로부터 2019-2020 시즌 각오를 들어본다.

## 12-13 기획

### 야호! 겨울방학이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 추울수록 밖에서 더 즐겨야 하는 법! 겨울바다를 보며 안산의 역사와 신재생에너지를 배워보자. 도심 속 눈썰매는 놓쳐서는 안 될 '꿀잼'을 준다.

## 16 도시인의 삶

### 따뜻한 연말, 나눔의 행복

20대부터 80대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합창단이 겨울철 특별한 하모니를 펼친다. 독거노인, 안산시 골목경제 돕는 한국 마사회의 선행은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만든다.

## 2020년 안산 천년의 종 타종

2019.12.31.(화) 20:00 ~  
2020. 1. 1.(수) 01:00

장소 | 화랑유원지 단원각

식전공연, 타종행사,  
달집태우기(소원꽃이), 불꽃쇼

출연자  
안산시립합창단, 크라이넛, 베리굿, 김동명



## 사계절 매력 발산하는 풍도... 기억해야 할, 역사 간직한 섬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역사... 지금은 여행객들에게 아름다움과 힐링 관광 제공

대부도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풍도는 조용하게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하루에 한번만 운항하는 배편은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하루 숙박하면서 온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풍도에 대해 알아보고 풍도를 즐겨보자.

###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풍도의 역사... 2002년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풍도는 단풍이 아름다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단풍 나무 '풍(楓)'자를 써서 '풍도(楓島)'로 표기하다가 1909년 대부도의 하위 행정리가 되면서 '풍도(豊島)'로 바뀌었다. 섬 주변의 해산물이 풍족하지 않자 풍어를 기원하며 풍년 '풍(豊)'자로 바뀌었다고 한다. 오래도록 불러 왔던 풍도(楓島)처럼 이 지역에는 활엽수가 많고, 특히 단풍나무가 많이 자라는 가을철에는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낙엽이 쌓인 겨울도 그런대로 즐길만하다.

풍도는 안산시에 속한 섬으로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남양군(南陽郡) 대부면 풍도리였다가, 1914년 부천군(富川郡) 대부면 풍도리가 됐고, 1973년 웅진군 관할이 됐다. 1994년 안산시로 편입돼 대부동 관할의 풍도동이 됐고, 2002년에 지금의 단원구 풍도동이 되는 등 많은 변천의 역사를 가졌지만 안산시의 한 섬으로 쉽게 방문해 여행을 올 수 있게 돼 고마울 뿐이다.

### 마을의 수호신 은행나무... 인조가 심은 설(說) 현실성 있어



마을을 지나 후망산에 오르는 지점에 마을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수령 500~600년으로 추정되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안산시 보호수로 지정됐으며, 마을 뒷산인 후망산 중턱에 자리 잡고 마을 해안을 바라보며 수호신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은행나무들은 661년 나당연합군의 장수로 왔던 소정방(蘇定方)이 귀국하던 중 풍도의 풍광에 반해 한 달 동안 머물며 심어 놓았다는 전설이 있다. 하지만 은행나무 수령과 시대가 맞지 않아 전설은 전설일 뿐이고, 조선시대 인

조와 관련이 더 깊다. 대부도의 중현마을에 인조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전해 오는 것으로 미뤄보면, 풍도 은행나무는 아팔의 난 때 잠시 풍도로 피신한 인조가 심은 나무라는 식물유래담이 더욱 현실성 있다.

### 야생화 천국 풍도...사계절 다른 매력 발산

풍도는 계절에 상관없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봄에는 섬 전체가 복수초·노루귀·풍도 바람꽃·중의무릇·평의바람꽃·풍도 붉은대극·산자고 등 야생화로 뒤덮인다. 야생화는 산 곳곳에 군락을 이루며 섬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봄을 알리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여름엔 갯벌이 없어 조용하게 향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예쁜 해수욕장이 있다. 가을에는 섬이 단풍으로 물들어 관광객을 유혹하며, 지금처럼 겨울에는 쌓인 낙엽을 밟으며 후망산 등산도하고, 바닷가 산책코스를 돌며 북배와 사방에 펼쳐진 겨울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 풍도

풍도는 서해를 오가는 해상 뱃길과 남쪽 연안항로가 만나는 곳으로, 경기만에서 한양으로 가는 직항로였다. 경기만은 고대 이래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거쳐 특히 고려에 이르러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외교의 중심지이며, 물류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풍도 항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선박의 뱃길이었다. 특히 1986년 8월 16일 건립된 풍도등대 역시 인천과 평택, 당진을 오가는 선박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세워졌을 만큼, 서해의 요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해군 영웅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가 "동해에 독도, 서해에는 풍도를 차지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일찍부터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 가슴아픈 역사지만 꼭 기억해야 할 '풍도해전'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한 풍도 앞바다에서는 125년 전, 청나라군 함대와 일본군 함대가 맞붙은 풍도해전이 벌어졌다. 동학군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의 요청으로 3천 명 규모의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이 이에 항의하며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군대를 보냄으로써 갑신정변 이래 10년 만에 청일 양국의 대규모 군이 한반도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재

연된 것이다.

1894년 7월25일 풍도의 새벽안개가 서서히 걷힐 무렵, 일본군은 청 함대 제원호(濟遠號)에 포격을 시작으로 공격을 이어갔다.

약 한 시간 반 정도의 전투 끝에 청 함대 광을호(廣乙號)가 포격 피해로 화약고가 폭발하면서 암초에 좌초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1천200명의 군사와 보급품 등 장비를 싣고 풍도로 들어가던 고승호(高升號)는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았고, 호위함 청 함대 조강호는 포획되고 고승호는 침몰됐다. 일본군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일본은 한반도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은 일본 군함이 청 군함의 포격을 받았다는 구실로 청국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를 시작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됐다. 안산 앞바다에 있는 풍도에서의 짧은 전투가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도약하게 한 것이다. 패자인 청국은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반면, 조선은 끝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

풍도해전은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풍도해전은 지도와 함께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중국도 자국의 패전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청일 전쟁에 관한 박물관까지 지어 많은 사람들이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있다. 사계절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또 오게 만드는 매력덩어리인 풍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가슴아픈 풍도 해전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참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산시사, 조재곤 「한 일본인 중군기자가 본 1894년 청일전쟁과 조선」

## 좋은 정책 1번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안산시 정책  
청년 취업 · 일자리 지원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 학점, 다양한 경험, 자격증 등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은 청년 구직자를 위해 안산시가 내년에도 다양한 취업지원을 마련했다. 면접을 앞둔 청년에게 정장 지원부터 역량교육, 지원금, 행정인턴 경험까지! 취업 앞둔 청년들 모두 모여라!



### 면접 복장 대여 청년 '취업 홈런옷장'

- ◇ 대상 : 안산시 거주 18~39세 청년
- ◇ 시기 : 2020.1. ~ 12.
- ◇ 내용 : 구직을 위한 면접용 정장 일체 무료 대여
  - 남 : 상하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 여 : 상하 정장, 블라우스, 구두
- ◇ 신청 : 구직등록(안산시 일자리센터)
  -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http://www.ansan.go.kr)) 분야별 정보>경제일자리>취업정보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882)

### 청년 직무특화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 ◇ 대상 : 안산시 거주 만34세 이하 청년
- ◇ 시기 : 2020.3.26. ~ 12.31.
- ◇ 내용 : 취업에 필요한 직무 교육과 취업 역량 교육 실시
  - 직무특화 교육(무료)
  - 취업역량 강화 교육(무료)
  - 전문가 컨설팅 등
  - 모의 면접(인성, PT, 토론)
- ◇ 신청 : 안산시 일자리센터 직접 방문 접수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277)

###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재취업 희망 프로젝트)

- ◇ 대상 : 안산시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
- ◇ 시기 : 2020.3. ~ 12.
- ◇ 내용 : 일과 육아로 잠시 내린 엄마의 커리어 열차, 새로운 꿈으로 가기 위한 환승 열차 타기 프로젝트
  - 뷰티분야, 식음료 서비스 분야 등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교육기관과의 매칭으로 교육 및 일자리 체험기회 제공
  - 참여 희망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 희망 청년에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지원
- ◇ 신청 : 안산시 일자리센터 직접 방문 접수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277)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의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 시기 : 연중 수시
- ◇ 내용 :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 완화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 ※ 지원내용, 예산규모 등은 2020년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 신청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http://www.youthcenter.go.kr))
- ◇ 문의 : 안산고용복지+센터(031-412-6635, 6638)

### 청년 내일채움공제

- ◇ 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34세 이하 청년
- ◇ 시기 : 예산 소진 시까지
- ◇ 내용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년간 우수 청년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는 제도
  - 청년 : 2년 만기 시 1,600만원+이자 수령 (자기부담금 300만원, 기업부담금 없음)
  - 기업 : 2년 만기 시 100만원 지원
- ※ 지원내용, 예산규모 등은 2020년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 신청 : 온라인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 문의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사업

- ◇ 대상 : 안산시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
- ◇ 시기 : 2020.1. ~ 12.
- ◇ 내용 : 사회적 경제조직 고용촉진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근무장소 :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 35개소
  - 주40시간(1일 8시간 / 주5일), 월 급여 200만원 내외
  - 직무교육 및 직업역량 배양 교육(30시간)
- ◇ 신청 : 안산시사회적지원센터 홈페이지([www.ansanse.or.kr](http://www.ansanse.or.kr)) 또는 개별 구직 기업공고 확인 후 방문신청
- ◇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609)

### 특성화고 '취업지원 서비스'

- ◇ 대상 : 안산시 6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안산국제비즈니스고, 안산공고, 경기모바일과학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안산디자인문화고, 경일관광경영고
- ◇ 시기 : 2020.1. ~ 12.
- ◇ 내용 : 진로상담 & 취업지도 등
  -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대처법 등 구직자 권익보호
- ◇ 신청 : 각 특성화고 취업상담실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882)

### 청년 행정인턴 사업

- ◇ 대상 : 안산시 거주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 시기 : 2020. 3. ~ 10.
- ◇ 내용 : 현장실무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근무장소 : 관내 공공기관
  - 모집인원 : 70명
  - 근무내용 : 공공기관 행정업무 보조 및 실무경험
    - 1일 8시간 / 주5일 근무 / 생활임금(시급 9,830원) 취업특강 추진(2회)
- ◇ 신청 : 2020.1월 중 안산시청 방문접수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2)

###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 ◇ 대상 : 공고일 기준 안산시 거주 국내 대학 재학생
- ◇ 시기 : 매년 방학 및 상·하반기 학기 중 운영
- ◇ 내용 :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 제공
  - 근무장소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또는 위탁 공공시설
  - 근무내용 : 행정사무보조, 아동 학습도우미 등
  - 주35시간(1일 7시간 / 주5일) 또는 주20시간(1일 4시간 / 주5일)
  - 시급 8,590원, 교통·간식비 일 3천원, 주휴수당·월차수당 별도 지급
- ◇ 신청 : 안산시 홈페이지(※ 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상반기 학기 중 행정체험연수 : 1월 중 접수
  - 하계 행정체험연수 : 5월 중 접수
  - 하반기 학기 중 행정체험연수 : 7월 중 접수
  - 동계 행정체험연수 : 11월 중 접수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3)



## 안산시 2021년까지 시화호 뱃길 복원… 시화호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조성

### 안산천 하구~반달섬~대부도 총 21km … 26년 만에 복원



안산시는 1994년 2월, 시화방조제 건립으로 끊겼던 시화호 뱃길을 26년 만에 복원하고 안산천 하구 반달섬 대부도 옛 방아머리 선착장에 선착장 3개소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한다. 여기에 관광객 바다체험을 위한 40인용 선박을 도입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019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며 이후 6개월간의 시범운항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화호 뱃길 조성이 마무리되면 사리포구가 있던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인근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해 반달섬을 거쳐 시화호 방조제 안쪽 옛 방아머리선착장까지 이어지는 총 21km 구간에 옛 뱃길 항로가 복원된다.

시는 옛 뱃길 복원을 통한 새로운 해양레저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2023년 완공 예정인 방아머리 마리나항과 함께 시화호 일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시의 해양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뱃길 조성으로 안산시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시가 서해안의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4)

## 안산시 (주) TS 트릴리온과 손잡고 미등록 아동 수호천사로 나서

### (주)TS 트릴리온 무국적·미등록아동 위해 양육비와 병원비 등 후원

안산시가 국적은 물론 외국인 등록도 되지 않은 미숙아의 미래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안산시는 장기가 손상된 채 태어난 미등록·무국적 아동 A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헤어케어 전문기업인 (주)TS트릴리온과 12월10일 후원 결연식을 체결했다.

올 2월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태어난 A군은 830g의 미숙아로 태어나 장기가 손상되는 등 생명이 위급해 현재까지 수차례 수술과 입원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A군을 낳은 중국 국적의 여성은 한국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임신 25주 만에 아이를 조산한 뒤 중국으로 홀연 귀국한 상태다.

병원 측은 지난달까지 A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치료비 전액을 무료로 보호해왔지만 안산시와 (사)안산제일복지재단은 지속적인 돌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동전문 보호기관인 (사)아이들세상 함박웃음에 A군을 위탁했다. 현재 A군은 중국 국적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권과 비자도 발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서울에 있는 (주)TS트릴리온을 A군의 후원기업으로 발굴 후 후원결연식을 체결하면서 향후 양육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다. 이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후원 결연식에는 장기영 (주)TS트릴리온 사장 김희경 (사)안산제일복지재단 이사 (사)아이들세상 함박웃음 노창종 목사와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A군의



건강회복과 행복을 위해 뜻을 함께 했다.

시는 중국대사관 출입국사무소 및 경찰서 등과 협력해 친모의 귀국과 A군 친부모와 외조부모 등을 설득해 출생신고 여권·비자 발급 및 아동 인수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주)TS트릴리온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푸 치약 등 선도적 기술로 고객 맞춤 제품을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741)

## 안산시 114억 원대 숨겨진 공유재산 찾아내 넘겨받아

###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준공 이후 받아야 할 상당 공공시설·잔여지 107필지 무상양여

안산시는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준공 후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및 잔여지 가운데 안산시 명목이 아닌 공시지가로 114억 원 상당의 재산 107필지 18만9천399㎡를 무상양여 받았다.

시는 1992년 준공된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넘겨받아야 할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찾았다. 관련 자료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반월특수지역개발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안산시와 협의한 ‘1992년 잔여지 처분에 따른 업무 협의 문서’에 따라 환매 또는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안산시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한 시의 요청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준공인가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토지를 시에 넘겼으며 11월12일 등기까지 마무리됐다. 또한 시는 관

련 조사를 통해 아직 넘겨받지 않은 토지 50~60필지에 대해서도 12월내로 양여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지 이관 과정에서 시의 재산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새로 등록하면서 정확한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숨겨진 공유재산 확보로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안산시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 귀속되지 않은 재산을 찾아내는 등의 권리보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회계과(031-481-3054)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길가치키움터’ 1호점 개소 돌봄센터 설치 · 이용 아동 모집 신청하세요

안산시는 신길동 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신길가치키움터’를 설치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나섰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 공간을 시가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독서·숙제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돌봄센터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공모를 통해 ‘가치키움터’를 안산의 고유 명칭으로 정했다.

신길휴먼시아4단지 주민복지관 2층(단원구 도로로 60-34)에 위치한 ‘신길가치키움터’는 지난 8월 신길휴먼시아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간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2개의 활동실과 주방 사무실 등을 갖춘 면적 230㎡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신길가치키움터’에는 돌봄교사가 상주하며 안전한 놀이 및 기본활동을 지원하고 학기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운영한다. 월 5만원(간식비 포함, 급식



비 별도)의 저렴한 이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돌봄이 아닌 일시·간접돌봄(일 5천원)도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첫 사례인 ‘신길가치키움터’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길가치키움터 개소를 시작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



티센터 또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돌봄센터 설치 의향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신청 여성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 신길가치키움터 이용 아동 신청 :  
신길가치키움터 (031-492-9670)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신청 :  
안산시 여성가족과 (031-481-2269)

## 안산시 사랑의 온도탑...내년 1월31일까지 10억 원 모금 목표 “저소득·다문화가정에 써 달라” 기업들 너도나도 후원 동참



안산시는 시청 앞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2020년 1월31일까지 불우이웃돕기 연말 집중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1월26일 제막식과 함께 설치됐으며, 설치 당시 성공적인 모금을 위한 관내 기업들의 성금전달식도 열려 집중모금의 시작을 알렸다.

모금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목표액의 1%인 1천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도씩 올라간다. 시는 온도탑을 통해 안산시 나눔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관내 기업·단체·시민들의 나눔 문화 참여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년 12월17일

현재 61.2도(6억1천200만여 원)를 기록하며 목표 달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온도탑 제막식에 참여한 한국남동발전(주) OE사업처와 오비맥주(주) 가보주식회사는 각각 750만원 600만원 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데 동참했다. 오비맥주(주)는 2016년부터 매년 안산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안산시로 본사를 이전한 가보주식회사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안산시 저소득가정을 위해 성금 200만원과 아동 장학금 100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기업들의 기부가 잇따르며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달구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1억5천만 원 상당의 난방공사 및 후원물품을 기부했으며, NH농협 안산시지부도 사회복지 시설과 장애인을 위해 써 달라며 8천900만 원을, (주)솔라루체는 6천300만여 원 상당의 LED전구 3천개를 저소득 가정을 위해 후원했다. 저소득 가정과 어르신, 위기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사랑의 온도를 올리고 싶은 시민들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구청 주민복지과 후원담당, 시청 복지정책과 후원담당으로 후원(금)품을 지정기탁 하면 된다. 안산시로 지정 기탁된 후원(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산시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기부영수증 발행을 희망하는 후원자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즉시 발행도 가능하다.

◇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3025)

##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안산시는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2020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로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ARS전화(☎1588-5128)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신청·납부 및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본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 발생 시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안산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서비스 · 특화프로그램 우수기관으로 호평 경기도 우수 운영 공공도서관에 선정돼

안산시 공공도서관이 경기도가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과 경기도민의 도서관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19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독서문화서비스와 특화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으며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공공도서관을 인구수 비례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도서관 활성화 항목을 포함한 총 9개 항목을 서면으로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안산시 도서관 독서문화서비스와 특화 프로그램 정성(定性)평가 결과 안산시가 경기도내 1그룹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언제든 주민이 함께하고 싶은 공공도서관이 되고자 노력해온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계속해서 신규 도서관 조성과 장서 확충까지 독서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안산시는 1993년 안산시 최초 공공도서관으로 관산도서관

관을 열고 현재 15개의 공공도서관과 올해 12월17일 개관한 신길작은도서관까지 총 30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며 문화·예술·역사의 도시로 성장해 왔다.

공공도서관이 지식의 보고에서 문화의 산실로 지평을 넓히면서 북콘서트, 작가와의 대화, 예술·문화·재능 나눔 강좌, 작은음악회 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중앙도서관의 ▲인문학 열 두 마당 강좌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시민서평단 운영과 도서관 책 문화 축제 ▲안산의 책 서포터즈 사업, 관산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감골도서관의 ▲학교와 서비스 협력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서문화서비스로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안산시 '지역서점 바로대 출제'도 시민이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역서점에서 새 책을 빌려 볼 수 있어 시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덜면서 지역서점에는 매출 증대의 효과를 주고 있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는 음향·영상스튜디오와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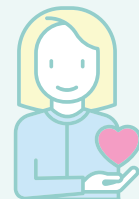
편집실, 영어자료실을 갖춘 전문도서관으로서 영상시대에 걸 맞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안산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주말은 자료실 이용이 오후 6시로 제한되고 도서관별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두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월요일, 관산도서관과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는 금요일이 정기 휴관일이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안산여성비전센터 2020 상반기 정규과정 개강

- ◇ 교육기간 2020.2.10. ~ 6.26.
- ◇ 대 상 만18세 이상 안산시민(남녀모두 가능) ※ 피부미용만 남성 제한
- ◇ 신청방법 PC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s://wm.ansan.go.kr/>)
- ◇ 모집기간 2020.1월중 ('안산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분야	과목명	분야	과목명	분야	과목명
조리	한식조리기능사	지도사	역사지도사	서화	서양화
	밀반찬		독서지도		한글서예
	한식조리기능사(야간)		초등수학지도사 2급		한문서예
	중식/양식 조리기능사	도배	한자한문지도		문인화
	웰빙요리		손쉬운 실용도배 A		캘리그래피
	샌드위치와 샐러드	화훼	손쉬운 실용도배 B	건강	우리 전통 민화
	홈메이드 이탈리아		플로리스트 자격		단전호흡
	제과제빵기능사	바리스타	원예관리사	예술	힐링댄스
	홈베이킹		커피바리스타A		댄스스포츠
	홈베이킹(야간)		커피바리스타B		하모니카
미용	헤어자격		커피바리스타C	5060 신중년 생활 기술	팬플롯 연주
	헤어실무	기예	커피바리스타D		민요&장고
	이용사자격(야간)		커피바리스타(주말)		한국무용
	네일아트 자격		한지공예		도시락창업
	마사지테라피		닥종이인형		헤어컷&스타일링 연출
	피부미용자격	컴퓨터	패션핸드페인팅	어학	플라워샵창업
생활	피부미용창업		규방공예		카페창업 A
	현대의상(심화) 및 옷수선		실버예술지도사 자격		카페창업 B
	현대의상(초급/야간)		가족공예		반려동물
	반려동물의상제작		감성 사진찍기		행동교정사
	가방만들기		사진을 활용한 실크스크린 기법		기초영어
	홈패션(야간)		ITQ자격		영어회화
	한복(초급)		컴퓨터그래픽스		생활영어
	한복(심화)		웹디자인기능사		기초 일본어
	프랑스자수		전산회계(야간)		일본어회화(중급)
			유튜브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편집		중국어 초급
					중국어HSK 자격증(야간)
					원어민중국어

※ 개설프로그램은 수강 인원,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2762)

### 저소득 가정 아동,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초·중·고교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지원



안산시는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배포하는 등 교육급여 신청 독려에 나섰다.

맞춤형 급여의 일종인 교육급여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4인 가구 기준 월 237만4천587원)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가정은 내년부터 연간 초등학교생 20만 6천원 중학생 29만5천원 고등학생 42만2천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과서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부 감면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 지원의 일종으로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외에 각종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전화 기본요금 및 통화요금 정부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아동에 대한 빠짐없는 신청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통지서 발송 시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급여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학교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석진욱 감독

### “우승은 당연한 목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보면 결과도 따를 것”



2013-14 시즌을 앞두고 창단한 V-리그의 제 7구단이 자 안산시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은 2013년 11월 5일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를 상대로 V-리그 데뷔전이자, 안산에서의 첫 V-리그 경기를 치루며 역사를 시작했다.

한국 배구계의 스타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김세진 감독이 창단 멤버로 첫 감독을 맡으며, 창단 첫 시즌은 신생팀의 한계를 보이며 7개 팀 중 6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V-리그 막내구단으로 총 30경기 중 11승을 거두기도 했으며, 신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희망을 보인 첫 도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OK저축은행 팀은 이듬해 역사를 다시 썼다. 창단 2년차인 2014-15시즌부터 2시즌 연속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특히 2014-15시즌은 8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삼성화재를 결승전에서 누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팬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어진 정규리그 세 시즌에서 7위, 7위, 5위라는 하위권에 머무르며 창단부터 팀을 이끌던 김세진 감독이 사퇴하고, 2019-20시즌을 앞두고 수석코치였던 석진욱 감독이 새로운 수장이 되었다.

2019-20시즌이 절반이 채 안 치러진 현재(12월) 치열한 순위권 다툼을 펼치고 있는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의 석진욱 신임감독을 만났다.

**2013-14 시즌 팀 창단부터 수석코치로 일하던 팀이라 어떻게 보면 감독직 수행도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코치로 일할 때와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석 감독은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감독으로써 정장을 입고 경기 내내 서서 작전지시하는 부분은 처음이라 어색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석 감독은 1999년 삼성화재 배구단에 입단해 은퇴 후 OK저축은행 배구단 수석코치로 오기 전까지 뛰었다.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배구 국가대표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치러진 제2회 동아스포츠대상 남자프로배구 올해의 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2013-14시즌 OK저축은행 배구단이 창단하며 김세진 당시 감독이 은퇴 직후의 석 감독을 수석코치로 영입했다고 한다.

이어 감독직 첫 도전에 석 감독만의 새로운 컬러를 더한 부분이 있을까하는 질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수비와 연결 부분을 많이 강조하며, 외적인 부분에서는 경기에 지고 있더라도 무기력하지 않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석 감독은 현역 시절 특히 수비가 강하기로 이름을 떨친 선수였다. 1999년부터 삼성화재 배구단에 입단한 이래 김세진, 신진식 당시 선수들과 함께 전매특허인 수비 리시브와 탁월한 센스로 삼성화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였다. 공수양면에서 활약이 뛰어나 팬들로부터 ‘배구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연패를 기록하며 성적이 조금 아쉽지만 충분히 상위권 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남은 시즌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12월에 용병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곧 정성현 선수가 전역을 해서 복귀를 한다면 팀의 가장 좋은 전력이 구성 될 거라고 본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찬스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실제 2019-2020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안산 OK저축은행에 입단한 크로아티아 출신의 용병선수 레오 안드리치는 키 2m3cm의 장신 라이트 공격수로 팀의 주축선수이지만 부상으로 팀 경기의 절반도 뛰지 못하고 빠져있다. 한편 팀도 시즌 시작과 함께 5연승을 달렸으나 이후 연패에 빠지기도 하며 현재 5위에 머물러있다.

모든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겠지만 더 좋은 성적과 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특별히 꼽을만한 키 플레이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석 감독은 송명근 선수를 뽑았다. 이어 “하지만 현재 약간의 부상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체력적인 면이 떨어져 걱정이다”며 “프런트와 스텝들의 도움으로 떨어진 체력 보강을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 플레이어로 뽑힌 송명근 선수는 팀의 창단멤버로서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배구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팀의 간판선수이다. 팀이 최종 우승했던 2014-15시즌 V-리그 챔피언결정전 MVP를 수상하기도 해 팀의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다.

시즌에 대한 마지막 기자의 질문으로 아직 남아있지만 이번 시즌의 최종 목표가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석 감독은 “이번이 첫 시즌인데 팀 문화와 팀 컬러를 바꿔보는 목표가 일단 있다”며 “사실 감독으로서 당연히 우승하고 싶다. 그렇지만 선수들에게 너무 부담주고 싶지 않고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안산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데 안산시민과 가까이 호흡하기 위한 팀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석감독은 “현재 선수단 숙소를 안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시와 논의하고 있다”며 “구단이 안산을 연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코칭스텝 전원이 안산으로 숙소를 이전하고 지역에 뿌리 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야 안산 시민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했다. 현재 선수단 숙소와 연습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다.

마지막으로 OK저축은행 팀의 경기를 응원하러 직접 찾아주시는 팬, 안산시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 “경기장에 오시는 팬 분들이 즐겁게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 내용으로 보답하겠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많은 이벤트와 푸짐한 경품들도 준비돼 있으니 남은 시즌 상륙수체육관에 찾아 와주시고 안산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어린이의 꿈을 쏜다!

### 안산시 어린이들을 위한 ‘코오롱 꿈나무 양궁교실’



코오롱 그룹이 안산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있다. 코오롱 엑스텐보이즈 양궁팀이 안산시 어린이들에게 양궁을 가르치며 함께 체험하는 ‘코오롱 꿈나무 양궁교실’이다. 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호자 종목’이지만, 코오롱 양궁팀은 평소에도 양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궁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창단한 코오롱 엑스텐보이즈는 서오석 감독을 필두로 우수한 선수들이 모여 국내 최고의 실업팀을 추구하고 있다. 코오롱 그룹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지원해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진행된 양궁교실에는 5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열띤 관심을 보였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창환 선수와 양궁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이우석 선수 및 최건태 선수, 신재훈 선수, 박성호 선수, 김선호 선수들이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양궁교실은 양궁 이론 강의와 활쏘기 시범, 활쏘기 체험과 함께 코오롱스포츠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허밍스쿨과 연계한 체력 테스트, 스포츠 인성교육 등 청소년 맞춤 체육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과 짝을 이뤄 보호대 착용부터 양궁의 올바른 자세 지도까지 꼼꼼히 진행했다. 프로그램이 어렵지 않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들이어서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양궁교실은 이어졌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양궁 선수들의 미니 팬사인회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코오롱 꿈나무 양궁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양궁을 체험함으로써 양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양궁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코오롱 양궁팀 창단 이후부터 8년째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양궁교실은 2020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코오롱 엑스텐보이즈 양궁팀 홈페이지(<http://www.kolonarchery.com>)에서 공지를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 사진제공 : 코오롱그룹

소식通



###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대상 :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회,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포함)
-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4) 통·반의 장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의 기간 동안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1) 선거일 후 6월 이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
- 2) 선거일까지 : 주민자치위원

## “우리함께 행복한 춤을 춰요”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생활체육

### 와동체육관에서 안산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열려



“오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몇 달을 고생했어요. 간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해요” 제9회 안산시장배 전국 프로·아마·학생 댄스스포츠대회에 참가한 한 참가자의 소감이다.

12월1일 오전부터 시작된 댄스스포츠대회는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와동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안산시와 안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안산시댄스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전국대회다. 주요 참가자들은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종목은 라틴에서 라틴솔로 1종목부터 5종목까지 다양했으며, 모던의 경우 1종목부터 3종목까지 진행됐다. 오전 예선전을 마친 후, 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 개회식 이후에는 각 종목 준결승과

결승전을 치렀다. 모든 대회경기는 이날 오후 6시경 마무리 됐다.

한갑주 안산시댄스스포츠연맹 회장은 “최근 건강한 삶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며 “댄스스포츠는 스포츠와 무용, 음악, 연극 예술을 접목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체육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또 “이번 대회는 참가한 댄스스포츠동호인 및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단합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며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과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다는 의미의 ‘워라밸’ 등의 신조어가 탄생하면서 행복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댄스스포츠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가장 적합한 생활체육”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오전에는 각 종목 예선, 오후에는 준결승전과 결승전으로 치러졌으며 각 부문 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프로라틴 1등 이상민, 이단비, 2등 신지호, 공진선, 3등 이창원, 김도예 ▲프로골드 1등 김영민, 편진숙, 2등 돌체, 엿지, 3등 황대룡, 이선희 ▲프로A 부문 1등 정태비, 서불이, 2등 김영민, 편진숙, 3등은 박재하, 강은선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 헌옷 등 재활용 의류 배출 수거방법 변경

안산시는 2020년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가의 헌옷 등 재활용 의류를 다른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매주 화·금요일에 수거한다.

시민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 이후에 집 앞 또는 상가 앞에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 의류를 배출하고 이를 시가 지정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거한다.

그간 재활용 의류는 시 곳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통해 민간업체가 수거했지만 주거환경 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의류수거함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연평균 200여건에 달했다. 현재 안산시 관내 도로변 및 인도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재활용 의류수거함은 1천500여 개로 12월 31일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수거체계를 개편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0279)



## 구본권 기자가 말하는 ‘공부의 미래’

안산시가 매년 진행하는 '2019 인문학 열두 마당'의 올해 마지막 강연을 맡은 구본권 기자는 '공부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공부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월11일 안산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공부의 미래’ 강연은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공부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한겨레신문사 소속인 구본권 기자는 IT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현직기자이자, 도서 ‘공부의 미래’의 저자이자. 다음은 정리한 강연 내용이다.

### ‘공부의 미래, 메타인지가 답이다’

#### 초고령화 및 역피라미드 사회에 사는 우리

“공부는 항상 미래를 위한 노력인데, 미래가 지금처럼 불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녀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미래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스쿨 보내고 의대에 보내면 될까요? 지금은 3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미래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100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래 살고, 초고령화 역피라미드 사회에 산다는 것입니다.”

#### 스스로 계속 공부해야 한다

“이젠 평생 직업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뭔가를 재빨리 잘 찾는 능력. 빨리 변하는 세상을 잘 배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추천하는 직업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미래’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이 뭐가 따져보고 뭐가 중요하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새로 배우지 않으면 지금의 지식은 금방 쓸모없고 낡은 것이 됩니다. OECD 국가 중 학습효율성 및 성인역량조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지로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공부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지식정보 사회의 핵심능력이란?

“이제 누구나 인류가 쌓아온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닙니다. 과거에 이런 지식은 소수의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잘 활용하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정보사회의 핵심능력은 첫 번째, 호기심, 즉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판별능력, 즉 호기심을 통제하고 방향성을 주는 제어력입니다. 요새 가짜뉴스가 판치는 원인은 호기심은 있는데 정보판별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판적 사고능력이 정보판별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배움의 기쁨을 알아야 한다

“가끔 ‘생활의 달인’을 보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무언가를 개선했을 때의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평가를 절대 자기 목표로 삼지 않고 내면의 동기, 배움의 기쁨을 잘 알고 계속 추구하며 앞으로 성공할 마음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의적 인재가 되려면 이렇게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 광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모델로 했는데 만델라, 아인슈타인, 간디, 존 레논 등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물을 다르게 보고 창의성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최강의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1707년 암초충돌 사건을 계기로 경도법을 제정하고 바다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네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라, 즉 네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공자도 제자 자로의 물음에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 독서가 ‘메타인지’를 만든다

“이제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공부하는 동기를 찾아낼 수 있는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메타인지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독서가 메타인지를 가장 많이 만듭니다. 동영상 볼 때는 그냥 눈으로 보지만 독서할 때 비로소 이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컨은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주역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즉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변해야 통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각만 하지 말고 뛰어다녀야 궁을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을 객관화해서 들여다 볼 줄 알게 되면 최고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 “우리도 연말이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 장애인돕기 어울림한마당 사랑의 콘서트 열려

“우리도 연말이면 즐겁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0회 장애인돕기 어울림한마당 사랑의 콘서트에서 한 장애인의 외침이다. 이런 외로움을 달래주기위한 장애인들의 한마당 잔치가 11월29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렸다. 행사는 안산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가 주관했다. 파랑새합창단 애인밴드의 싱글 노래가 식전행사로 시작되면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장애인과 내·외빈들은 연거푸 박수갈채를 보냈다. 유공자표창을 전달하는 자리에서는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생활격려금이 전달됐다. 이영식 지부장은 생활격려금 전달식에서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장애인들이 주권을 상실하고 냉대와 차별을 받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됐다”,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고 비장애인이 나와 내가 아닌 함께 화합하며 우리들이란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등의 말을 건네며 정성스럽게 준



비한 봉투를 전달했다. 행사장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은 장애인들은 2부 ‘사랑의 콘서트’에 푹 빠졌다. 장애인풍물단 ‘활’의 공연과 함께 노래자랑이 이어졌고, 행운권 추첨으로 즐거움이 더해지면서 이날 장애인돕기 어울림한마당 사랑의 콘서트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연말이면 행사가 많은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 많이 갖고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산의 3만5천여 명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30% 늘리는 등 관련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안산시 장애인복지과(031-481-2204)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 혹독한 겨울 추위 따뜻하게 이겨내자...안산시 한파대책 추진 시민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온열의자, 한파쉼터 등 확대 설치



안산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온기쉼터

안산시는 '2019년 겨울철 한파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우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록구와 단원구에 각각 30개씩 설치했으며, 올 겨울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약자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록구 37개소, 단원구 38

개소 등 모두 75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올 겨울 동안 버스정류장 134개소에서 온열의자를 운영하며,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10개소에는 아크릴판으로 구성된 온기쉼터(방풍시설)를 설치해 강추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온열의자는 기온이 영상 15도 이하로 낮아지면 자동으로 가동돼 의자 온도를 최고 37도까지 올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훈훈한 열기를 제공한다. 온열의자는 겨울철에 잠시라도 추위를 녹일 수 있고 장시간 혹한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며 온열의자에 앉아 손을 넣으면 금세 온기가 회복될 것이다.

아울러 올 여름에 시민들에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제공하며 무더위쉼터로 활용된 270곳은 온기가 후끈후끈한 한파쉼터로 활용된다. 경로당, 금융기관, 동행정복지센터, 체육

관 등 가까운 한파쉼터에서는 따뜻한 온기를 제공한다.

한파가 몰아닥쳐 집에 있는 수도계량기, 급수관로 등 상수도시설이 동파될 때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031-481-2037)에 신고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민원처리동반을 운영해 동파예방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한 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온열의자 등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도 이어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유류 등 에너지 관리시설 안전대책으로는 추운 겨울철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절을 유예하도록 관련 기관과 검토하는 한편, 정전예방과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645)

## 안산시 평화통일 조례 첫 걸음, 2019년을 돌아보다!

### 6.15안산본부, 송년통일음악회 개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스포츠 교류에 이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경계를 넘고 함께 평양냉면을 먹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2019년의 한반도는 냉랭했다. 하지만 6.15안산본부는 2019년 12월4일 오후 7시 안산

시 단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우리가 만드는 통일'이라는 제목의 송년통일음악회를 열고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송년통일음악회를 시작하며 무대에 오른 6.15안산본부 윤기중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마침내 하나 되는 꿈, 통일된 조국이 동북아, 아니 세계에 우뚝 서는 꿈, 그런 꿈을 꾸다"고 말했다.

송년통일음악회는 '안젤로', '양상불', '홍열', '노래를찾는사람들'의 노래 공연으로 채워졌다. 노래 공연 중간중간 이찬환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상임대표,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위원장, 박지완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조직팀장,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의 전우현 학생이 이야기 손님으로 무대에 올라 통일에 대한 자신의 경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고등학생인 전우현 군은 "강연도 들어보고, 통일골든벨에 참여해보기도 하는 등 스스로 참여했던 다양한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접하게 됐다"며 "통일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대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6.15안산본부 관계자는 "올해 남북, 북미 관계에서 진전이 없었던 정세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활동했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서로 독려하고, 내년을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며 음악회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안산시는 2019년 4월12일 시의회에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조례에 근거해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조성위원회가 활동이 시작됐고, 이진찬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안산시가 실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문의 : 6.15안산본부(031-411-6150) /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 안산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안산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밀접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업은 원가대비 사용료의 낮은 현실화로 인해 더 나은 하수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요금이 1m³(톤)당 30원에서 최대 150원 인상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사업재정에 활용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

업종	사용구간	현행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용	01월 20일	180	210	250	300
	21 - 40	270	320	390	460
	41 이상	410	490	590	700
일반용	1 - 50	330	390	470	560
	51 - 100	415	500	600	700
	101 - 300	545	660	790	920
	301 - 1,000	606	740	890	1,040
대중탕용	1,001 이상	630	780	950	1,110
	1 - 1,000	290	340	400	480
	1,001 - 1,500	350	420	510	610
	1,501 - 2,000	435	520	630	750
산업용	2,001 이상	510	620	750	890
	전 구 간	380	450	530	630

가정용 월 24톤 사용 시 하수도사용료 : 4,680원 5,480원 (800원 인상)

\*계산방법 : 210원 × 20m³ + 320원 × 4m³ = 5,480원

◇ 문의 : 안산시 하수과(031-481-2458, 2465)

## 상록수보건소 “금연 미리 결심하고 성공하세요” 새해 금연 결심! 12월에 등록하면 선물 추가 증정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월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특별 선물을 추가 지급한다.

상록수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연중 금연상담사가 니코틴의 존도 및 일산화탄소 측정 등의 검사 후 개인맞춤형 상담과 금연보조제(패치 껌 등)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금연성공 의지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금연성공 시 행동 강화물품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을 성공하면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금연동기 향상을 위해 3인 이상 금연을 결심한 금연동료가 모두 금연에 성공하면 개인마다 1만

원권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삼삼오오' 금연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상록수보건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으로 잦은 모임과 술자리 약속에도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12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개인용 칫솔살균기를 추가 지급한다. 상록수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평일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주말금연클리닉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12시에 운영한다. 반월·수암보건지소에서 도 금연클리닉을 평일에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담배를 끊고 자 노력하는 시민들께서 새해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금연성공에 도움을 받아 꼭 평생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 금연클리닉(031-481-5899, 5921)

##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올해 마지막 ‘고당교실’ 운영 고혈압 당뇨병 관리 위한 올바른 식사법 강의…매달 한 차례씩 내년에도 이어져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고당센터)는 11월 27일 올해 마지막 고당교실을 상록수보건소에서 개최했다.

고당센터는 매달 한 차례씩 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병의 합병증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강좌는 중앙대학교병원 영양관리팀 유혜숙 팀장이 초청돼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올바른 식사관리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유혜숙 팀장은 다수의 보건소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용어를 사용해 혈압관리를 위한 저염식사의 중요성과 생활 속에서 저염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외식할 때 싱겁게 먹을 수 있는 팁을 전했다.

며 무엇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혈당조절을 위한 식사법으로 알맞은 양을 제때에 골고루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 함을 알려주며 당뇨식은 특별한 식단이 아닌 건강식임을 강조했다.

고당센터에서는 고혈압 당뇨병의 관리에 대한 교육이 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고당교실은 월 1회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031-416-9088)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당부



###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란?** - 흔히 독감으로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 ◆ **감염경로**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되며, 잠복기는 1일~4일, 평균 2일입니다.
- ◆ **주요증상**은 고열(38℃이상),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입니다.
- ◆ **지정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 가능합니다.**

### 4가지 예방수칙



1

####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 기침예절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3

####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기침, 콧물, 발열 등  
유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4

**예방접종 :**  
70~90%의 예방효과  
(연령에 따라 효과가  
차이날 수 있음)

## 원곡보건지소 외국인 무료진료 일정표

구분	진료과목	진료일정	비고
평일	일반, 한방	월 - 금 9시 - 18시 (중식 12시 - 13시)	
	치과	화요일 9시 - 18시	치과 주 1회 운영(화요일)
	임산부 건강관리	월 - 금 9시 - 18시	산모수첩, 신분증 임신성당뇨 및 빈혈검사 엽산제, 철분제 제공
일요일	내과, 통증클리닉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초음파 결핵검진 등 건강검진	13시 - 16시 (12시 접수시작)	건강검진 (혈액, 소변, 초음파, 심전도, X-ray) 2, 5, 8, 11월 운영
	일반, 치과, 한방, 안과 이비인후과, 부인과 정형외과	14시 - 17시 (13시30분 접수시작)	치과(10명), 한방과(15명)운영
	일반, 치과, 한방	14시 - 17시 (13시30분 접수시작)	

### 접수시 준비사항

- 외국인 신분확인 ▶
-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입국사무소 접수증 등
- 미등록 외국인 - 건강검진, 유일무료진료 이용가능

**진료팀** | 사랑받는사람들,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한의원, 치과의사회 등  
**문의처** | 원곡보건지소 ☎ 031-481-6834~3



## 겨울방학특집

바다가 열리는  
탄도와 박물관 이야기

안산시 대부도 끝자락, 탄도항에 가면 바다가 열리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사라져 가는 서해안 갯벌과 생태환경을 조사·연구·수집해 보존 전시해 놓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에서는 대부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대부도를 공부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도 같은 이곳에 들어서면 크게 한 벽면을 차지한 커다란 수족관에 서해에 살고 있는 어종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어 시선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까치상어는 특히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이들은 또 바다의 신비함을 영상화한 3D 영상도 관람하며 서해를 신나게 즐길 수 있으며, 직접 색칠한 물고기가 커다란 영상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3D 수족관도 체험하며 재미에 흠뻑까지 더하고 있다.

1층 1관 전시실에는 신비한 갯벌의 동식물들의 서식지와 습지, 갯벌에서 낙지, 조개류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전시돼 또 한 번 관람객을 사로잡는다. 2관인 2층으로 올라가면 대부도 대부광산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이 시선을 독차지 하며 신석기부터 이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을 볼 수 있으며, 대부도 전통가옥형체와 구조를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도 염전에서 만들어지는 질 좋은 소금이 생산되는 과정도 한눈에 볼 수 있다. 2관 특별 전시실에는 12월 30일까지 특별전 '풍도해전, 그날'이 진행된다. 전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미리 예약해 해설사로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어촌민속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추석은 휴관하며, 안산시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박물관을 나오면 바로 앞에는 서해가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 열리는 바닷길을 물때가 맞으면 탄도항에서 누에섬까지 걸어서 다녀올 수 있다. 1시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물때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곳이 안산9경(景) 중 한 경인 탄도바닷길이다. 특히 탄도 앞바다에서 볼 수 있는 해질녘 노을은 한 폭의 그림을 마음에 담을 정



도로 아름답다.

겨울 방학 때 웅크린 마을을 열고 박물관도 보고, 체험도 하고, 바닷길도 걷고, 추억도 쌓으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탄도항을 즐겨보자.

## 안산어촌민속박물관

-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7(선감동)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
- ◇이용요금 안산시민 무료 입장  
성인 2천원 / 청소년 및 군인 1천500원 / 어린이 1천원
- ◇단체예약 평일 사전예약 시 20명 이상 단체 50%할인
- ◇문 의 안산어촌민속박물관(032-886-0126)

세계 최대규모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화방조제를 따라 쪽 펼쳐진 바다를 감상하며 대부도로 가다보면 하늘 높이 펼쳐진 전망대가 눈에 확 들어온다.

시화 나래휴게소에 설치된 75m 높이의 달전망대는 서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화나래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달전망대 쪽으로 가면 오른편으로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이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1층에 대형화면과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전시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놀이방이 있다. 이곳에서는 직접 힘을 가하면 불이 피워지는 원리와 1마력의 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실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어린이들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람객도 학습하며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어 놀이방으로 사랑받고 있다.



전시실은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에 조력 발전소가 건립돼 물고기가 뛰어 노는 깨끗한 시화호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시화호 역사존', 달의 인력으로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밀물과 썰물 현상 등 달이 인류에게 주는 효과 등을 알려주는 '달의 선물존', 바닷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존', 조력, 수력, 지열, 태양광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와 중요성을 알리는 '청정에너지존'으로 꾸며졌다.

전시관을 관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달전망대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인 서해의 아름다움을 보며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하늘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리바닥 데크에서는 신발을 벗고 걸으며 아찔함과 짜릿함을 맛볼 수 있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다. 달전망대는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달전망대를 내려와 휴게소 가는 길로 이어진 공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바다를 보며 박물관도 보고, 체험도 하고, 달과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공감할 수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좋은 추억을 쌓아보자.

## 시화나래 조력문화관

-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927(대부동동)
- ◇관람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 ◇이용요금 무료
- ◇예약관람 평일 단체(10~50명) 시간대별 1팀  
문화안내사 견학(30분) 신청 가능
- ◇문 의 시화호 조력문화관(031-885-7530~1)

김영미 명예기자\_flowerym@hanmail.net

# 안산의 겨울 2배 즐기기

## 겨울왕국 속으로 온가족이 함께 눈썰매타고 싱싱~

겨울하면 떠오르는 눈썰매. 어른에게는 추억을, 어린이에게는 동심을 주며 싱싱 달리는 눈썰매를 안산시에서 쉽고 간단히 즐길 수 있다면?

전철 4호선 초지역과 가까운 접근성에 성인도 스릴감 있는 스피드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길이의 슬로프를 갖춘 '안산 눈썰매장'이 12월21일 개장한다. 안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안산눈썰매장은 1만6천500㎡의 넓은 부지에 일반 슬로프(120m×40m) 9개와 유아슬로프(60m×20m) 4개를 함께 운영하며, 유아안전사고방지와 대기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돕는다.

이용객들은 무빙워크를 이용해 쉽고 편하게 슬로프 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무료주차장 및 식당, 매점, 휴게실, 의무실 등의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이용객들이 가져온 짐을 보



관할 무료사물함도 이용 가능하며, 휴게실에서는 가져온 간식이나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매점에서는 간단한 간식거리와 음료수 등을 구입할 수 있고 휴게실 옆에는 놀이터도 마련돼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용객들도 편히 썰매를 즐길 수 있다.

안산눈썰매장은 매일 오후1~2시 정설시간에 슬로프 이용이 불가하며, 설 연휴에는 휴장기간(1.24.~25.)이 있으니 미리 참고해 방문계획을 잡는 것이 좋다.

비료포대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던 추억을 가진 어른부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열광하는 어린이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눈썰매 놀이를 긴 겨울이 가기 전 꼭 해야 할



활동으로 추천한다.

### 안산눈썰매장

-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179(원곡동)
- ◇운영기간 2019. 12. 21.(토) ~ 2020. 2. 16.(일)
-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 ◇휴장기간 2020. 1. 24.(금) ~ 1.25.(토) [설 연휴 2일간]
- ◇이용요금 성인 7천원 / 청소년 및 군인 5천원  
어린이 4천원
- ◇단체예약 평일 사전예약 시 20명 이상 단체 50%할인
- ◇문 의 안산눈썰매장(031-8085-7444)

## 안산식물원 옆 성호기념관

양반이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별을 관측하며 평생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기록한 것을 책으로 남긴 실학자 성호 이익, 그가 사랑한 별, 콩, 책 등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고 느껴볼 수 있는 박물관이 안산에 있다.

2005년 개관한 성호기념관은 안산의 위대한 위인이자, 실학자 성호 이익선생의 생애를 기리고 학문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안산시가 건립했다.

일동 식물원과 성호공원 사이에 위치한 성호기념관은 성호이익 선생의 학문 및 실학사상을 소개하는 상설전시실, 실학정보실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전시와 습식탁본체험이 가능한 어린이 체험전시실, 선생의 일대기를 상영하는 영상관, 교육 공간인 성호학당으로 이뤄져있다.

주요 전시 유물로는 성호 이익 선생의 친필 시 원고, 편지, '성호사설', '성호선생문집' 등의 저서와 '천금물전', 옥동금, 옥동초서 등 가학(家學) 관련 유물, 그리고 '지봉유설', '반계수록', '열하일기', '여유당전서' 등 실학 관련 유물 등 100여점에 달한다.

특히 성호이익의 대표적인 저서인 성호사설은 '소소한 이야기'란 겸허한 표현을 했으나 천지문(天地門)·만물문(萬物門)·인사문(人事門)·경사문(經史門)·시문문(詩文門)의 5가지 문으로 분류돼 총 3천7개 항목의 글이 실린 30권짜리



백과사전으로, 상설전시실에서 꼭 봐야할 대표유물들 중 하나다.

기념관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며 상세한 해설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단체 관람객은 예약제로 해설관람을 할 수 있다. 추운 겨울 실내 놀이터를 찾기 마련인 요즘 아이들과 함께 안산시의 똑똑한 박물관 탐방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실생활에 도움 되는 학문인 실학과 안산의 3대 인물인 성호 이익의 삶과 업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겨울방학이 될 것이다.

### 성호기념관

-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이동) 성호공원 내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 ◇이용요금 성인 500원 / 청소년 및 군인 : 300원  
어린이 : 200원  
7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무료
- ◇문 의 성호기념관(031-487-2574)



### 안산의 3대 인물 시리즈 ① 조선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1681~1763)

안산의 대표적 위인인 성호 이익은 안산군 침성리(지금의 안산시 일동)에 대대로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백성들의 삶을 체험하며 평생을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학 연구에 몰두해 왔다. 성호 이익은 퇴계 이황을 잇는 남인계열의 학자이면서 유교 이이의 경세학문과 반계 유형원의 영향을 받아 역사, 문학, 천문, 지리, 율산, 의학, 국방 등 모든 분야에 능통했다. 성호 이익은 학문을 현실에 이용하려는 관점을 갖고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적극 수용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국토와 백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삶을 살피는 의식과 태도가 그의 다양한 저술에서 드러나고 있다.

성호 이익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호사설'이 있으며 그의 사상은 권철신, 정약용, 안정복, 허전 같은 여러 제자들에게 이어져 실학사상으로 꽃피우게 된다.



## INTERVIEW

## 3대가 즐길 수 있는 건강 스포츠 ‘파크골프’ 햇빛 받으며 많이 걸어…치매예방 효과 등 노인건강에 최고

### Q 파크골프의 유래

파크골프는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됐으며, 목재로 된 헤드를 이용해 합성수지로 만든 공을 쳐 잔디 위 홀에 넣는 말 그대로 공원(Park)에서 즐기는 골프(Golf) 스포츠다. 골프와 달리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힘도 크게 들지 않고 할아버지(할머니), 아들(딸), 손자(손녀) 3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좋다. 골프와 거의 흡사하며 마지막 18홀까지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

### Q 안산 신길파크골프장 안내

신길공원 주차장에서 길을 따라 100m정도 공원을 오르면 정상에 탁 트인 신길파크골프장이 나타난다. 골프장은 A코스 9홀, B코스 9홀 합쳐서 총 18홀로 구성돼 있다. 공원 내에 위치한 탓에 승용차로 직접 가는 편이 제일 좋고, 전철을 이용할 경우 신길온천역에서 내려 약 1.8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거나 택시를 타고 신길공원 제1주차장이나 제2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면 된다. 인근에 식당이 없으니 경기 후 식사가 필요한 분은 전화로 주문도 가능하지만 도시락 지참이 바람직하다. 사용료가 무료인 신길파크골프장은 안산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온 누구나 365일 이용할 수 있다.

### Q 파크골프 즐기는 방법

골프(Golf)에 공원(Park·파크)을 더한 파크골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다. 골프와 경기운영은 비슷하나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에서도 즐길 수 있으며, 코스나 장비가 완전히 다르다. Par 3·4·5로 구성됐지만, 가장 긴 코스가 130m에 불과해 골퍼채는 하나뿐이다. Par 5 홀에서도 한 번의 스윙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골프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대로 공이 자주질 않는다. 골프 쳤다고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파크골프를 하기는 녹록치 않다.

코스는 짧지만 굴곡이 심하며, 장애물이 군데군데 있고, 띄워 칠 수 없다. 따라서 방향과 거리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스포츠다. 일반 골프의 홀 지름 108mm보다 조금 큰 200mm 정도지만 홀 주변이 살짝 높아 세게 치면 지나쳐버리고 약하면 타고 돌아 지나친다. 페어웨이 러프 구분은 없지만, 페어웨이가 좁아 OB가 쉽게 난다. 또한 그린에 올리는 개념이 없으며, 해저드도 없다. 심지어 차가 지나가는 임도를 코스로 정하기도 해 고수들도 빠트리기 쉬운 곳이 있을 정도다.

### Q 파크골프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람들

신길파크골프장을 찾아 최경환 안산시파크골프



협회 부회장 및 김효겸(73) 씨와 함께 라운딩을 한 후 김옥수(68), 오승민(66·과천) 씨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김옥수 씨는 “파크골프는 50대 후반부터, 특히 장애 재활에 아주 좋다. 또 3대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나는 올해로 4년째 즐기고 있다. 라운딩을 하면서 타수를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에 좋고 걸으면서 운동하니까 햇빛도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효겸 씨는 “전에 골프를 했고 지금은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골프를 했던 사람은 룰을 잘 알아서 좋다. 채도 다르고 공을 치는 방법도 다르지만 응용이 빨라서 좋다. 돈 안 들이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말했다. 과천에서 온 오승민 씨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 안산에서 파크골프를 친지 7년이나 돼 이미 안산시민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오 씨는 “파크골프를 친지 6~7년 됐다. 과천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안산신길골프장 시설이 더 좋아 안산을 찾고 있다. 안산시파크골프협회에는 신길, 용마, 원더풀골프모임이 있는데 나도 그 중 하나의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회비도 없으며 파크골프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겸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 범죄 없는 동네, 우리가 만든다 안산시 자율방범대…안전 마을 조성에 앞장



이재복 연합본부장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합니다.”

안산시 자율방범대는 1천473명의 대원이 안산시 25개동 39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록구 연합대는 13개동 16지대에서 563명이, 단원구 연합대는 12개동 22지대에서 858명이 순찰을 돈다. 본청 연합본부는 1지대 25명이 ‘범죄 없는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든다’며 안전 마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자율방범대원은 낮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지정구역을 차량을 타거나 걸으며 순찰한다. “범죄 없는 마을의 기초 조성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안산시 자율방범대 이재복(61·이동) 연합본부장을 만났다.

### Q 오랫동안 봉사활동에 앞장 서 왔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안산시가 아직 시로 승격하기 한참 전인 1981년 안산으로 이주해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안산시민으로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안산에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됐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돌아보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았다. 지역 통장을 하던 2000년 초에는 상록구 이동에 파출소가 없어 자율방범활동이 더 필요했다.

### Q 야간 자율방범대원들은 어떤 분들인가

낮엔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고 밤 시간을 이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분들이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야간 방범활동에 주1~2회 참여한다. 대원들은 지대별로 규율을 정해 따르고 상조도 조직해 굿은일을 함께 하고 있다. 지구대에서는 장학금을 마련해 차례대로 대원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 Q 15년동안 순찰을 돌며 접한 안산의 밤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싸우는 사람이나 취객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미풍양속에 반하는 도박장이나, 가짜 휘발유 제조 현장도 발견해 경찰과 함께 출동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이 줄고 노숙하는 분들이 눈에 띈다. 겨울철이라 몸을 녹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도록 쉼터로 안내하는데 굳이 마다한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가 여름처럼 더워진다.

### Q 활동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야간 자율방범대원들의 순찰 활동이 범죄를 막고 지역사회를 지켜 안전한 도시 안산시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안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범죄율 낮은 도시 상위권에 속하는 것도 야간 자율방범대원들의 역할이 한 몫 했다고 자부한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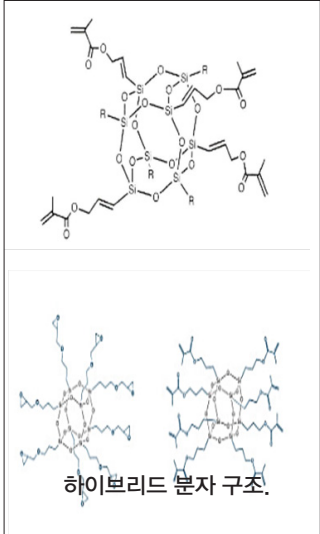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Station-G를  
가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 국유지에 전국 최초로 창업 공간 Station-G를 조성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이 마음 놓고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사업화·마케팅·글로벌 지원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세계를 목표로 무력무력 자라고 있는 스타트업을 소개한다.

## 폴더블폰 액정에 꼭 필요한 코팅기술을 제공하는 엠브리드 경기도 재창업 분야 결선대회 '최우수상' 수상



Station-G 106호에 입주한 엠브리드(대표 도우성)는 유기물과 무기물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신물질 합성기술을 활용한 소재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 기업은 경기도 재창업 분야 결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유망함을 인정받았다. 도우성 대표는 한화종합화학(현재 한화글로벌에너지주식회사)의 신사업팀과 제품개발 연구소에서 총 12년 근무했고 그 이후에는 벤처기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익혔다.

도 대표의 사업은 최근 첨단소재기술이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한다. 평소에는 접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다가 펼치면 태블릿으로도 활용 가능한 폴더블폰의 필수 요소이며, TV를 보지 않을 때는 접어두거나 일부만 노출시킬 수 있는 LG 롤러블 TV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비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다.

도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 특허를 피하고 새롭게 연구해 7가지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했다. 그 결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과 일본의 기술과 비교해 생산

가격 면에서 큰 강점을 얻었다.

등록된 특허는 ▲자외선 경화형 도료와 이를 이용한 멤브레인 데코시트 및 그 제조 방법 ▲가스 배리어성 수지 조성물 및 가스 배리어성 필름 제조 방법 ▲광경화성 하드코팅액 조성물 및 하드코팅 필름 ▲유기 하이브리드 복합체 조성물 및 제조방법 ▲유기 하이브리드 복합체 조성물 및 제조방법 ▲평면 또는 곡면 유리 및 플라스틱용 자외선 경화 점착제 조성물 ▲점착제 부착 방법 등이 있다. 출원 중인 특허는 ▲유기 하이브리드 복합체 조성물을 포함하는 고경도 코팅 필름 및 제조방법 ▲저광량 자외선 경화 하이브리드 점착제 조성물 및 제조 방법 등이 있다.

엠브리드는 특허 등록된 원천기술을 이용해 디스플레이 외에도 무독성이라는 강점을 가진 보유 기술을 통해 화장품, 인공뼈, 인공치아, 인공유리 등 관련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 문의 : 엠브리드 도우성 대표(010-5051-9985)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 '마을공동체 활동성과 함께 나눠요' 2019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주민 참여로 진행된 주민공모사업 130여개의 공동체 이야기 '한 눈에'



2019년 펼쳐진 안산시 마을공동체의 활동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2019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이 지역의 마을활동가와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12월7~8일 한양대 ERICA캠퍼스 라이언스홀에서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안산시 곳곳에서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한 130여개의 공동체 이야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사전행사로 안산마을주간(12.3~6)이 지정돼 와동 등 5개동에서 지역 마을탐방, 일동 등 5개동 지역거점공간에서는 마을 속 교류회가 열려 분위기를 띄웠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9 주민공모사업 활동 공유회 및 시상 ▲안산시 25개동 마을살이 활동 및 국토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기획전시 ▲17개동 마을계획 성과발표 및 강연회 ▲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어린이 팝업놀이터 등 우리지역 마을 만들기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마을의 변화를 찾아보는 재미와 다양한 마을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준비돼 전 연령층의 참여를 이끌었다.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이라는 행사에 걸맞게 마을잔치와도 같은 흥겹고 신명나는 시상식 분위기가 연출됐다.

주민공모사업 우수활동상을 수상한 와동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 진임순 대표는 "3년 동안 진행된 마을공동체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도록 더 고민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힘든 활동에도 함께해준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의 마을공동체 보안관활동 동아리부장을 맡아 활동한 단원고등학교 박진혁 학생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할 계획인데, 세대를 초월해 어른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활동한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감사했다"며 "졸업 후에도 지역 안에서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됐다"고 말하며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은 지역주민과 청소년, 아동이 회원으로 참여해 청소년안전보안관, 안전캠페인, 다시 만난 기억교실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일감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늘날의 공동체 활동의 결실을 함께 하는 자리이다. 서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주민이 만드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공모사업은 행정 및 기관이 아닌 주민 주체가 원칙이며 내년에도 계속된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들과의 정책 공유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 마을자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공모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www.happysan.or.kr)를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따뜻한 연말, 나눔의 행복 \_ Beautiful 안산

### 안산시평생학습관합창단, 평범한 사람들의 동행... 특별한 하모니

12월4일, 안산시평생학습관이 한해의 결실을 마감하는 날이다. 이 뜻깊은 날에 울림을 주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학습관을 방문했다. 안산시평생학습관합창단은 20대부터 80대까지의 폭넓은 연령층과 남자와 여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다채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서로 다른 컬러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이지왕 단장은



말한다.

합창단은 지휘자 권희준 강사와 피아니스트 강은혜 반주자의 재능나눔으로 시작되었다.

인터뷰하는 동안 오랜 시간 공부했던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권희준 강사의 소박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단원들과 함께 하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맑게 웃는다.

그와 단원들이 이루어낸 하모니는 겨울의 양지였다. 그곳에서 합창단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합창을 하면서 화합을 배우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모두가 한결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중에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심언애씨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잠깐 그녀의 말을 들어보았다. 그녀의

꿈은 성악가였다. 젊은 시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접어야 했다. 그런 그녀가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 권희준 강사에게 성악을 배우면서 노래는 두 다리로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고통 중에도 노래와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고 말한다.

장애가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노래를 하는 매 순간이 행복이었다는 한 단원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를 기부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들 삶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색깔은 행복이었다. 작은 나눔의 기제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지도 모른다.

◇ 문의 : 안산시평생학습관(031-409-1877)  
백양순 명예기자\_bys5870@hanmail.net

### 한국마사회, 독거노인 돕고 안산시 골목경제도 돕다

안산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써달라는 한국마사회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난방용품과 난방공사 비용을 12월6일 기탁받았다.

이날 안산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종길 한국마사회 부회장, 강기태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이웃사랑을 통해 온기를 나눴다.

한국마사회는 시로부터 추천받은 독거노인 40여명에게

1인당 400만 원 상당의 난방공사를 후원하며 100여명에게는 온수매트·이불·내복세트 등 20만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특히 독거노인 지원과 함께 안산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난방용품과 난방공사 비용 모두를 안산화폐 ‘다운’으로 결제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데 앞장섰다.

시는 한국마사회로부터 건네받은 난방용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배부한 뒤 각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찾아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안부도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동절기 독거 어르신들에게 온수 매트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소외이웃들과 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3591)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



### ‘뽕양궁’



## 먹을수록 더 찾게 되는 맛 ‘뽕양궁’

최근 다양한 나라의 음식에 대한 정보가 늘고 향신료나 이국적인 재료에도 익숙해지며 뽕양궁이나 팟타이 같은 태국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태국음식점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태국의 대표적인 스프인 뽕양궁은 우리나라의 신김치로 끓인 김치찌개처럼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특징이다. 프랑스의 부이아베스, 중국의 삭스핀과 더불어 세계3대 진미 스프로 꼽히는 ‘뽕양궁’은 한 요리 안에 짠 맛, 신맛, 매운맛, 단맛 등 갖가지 맛이 나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뽕양궁의 ‘뽕’은 끓인 국물, ‘얌’은 맵고 신맛, ‘궁’은 새우를 뜻한다. 이름 그대로 새우를 주재료로 하여 토마토와 양파, 버섯과 향신료 등을 넣고 끓인 매콤 새콤한 스프이다.

뽕양궁을 주문하면 밥과 함께 나오는데 국수를 말아먹는 방법도 있다. 라임즙으로 신맛을 내고 레몬그라스, 고수 등을 넣어 특유의 향을 내는데 이 때문에 ‘뽕양궁’을 접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레몬그라스는 한국인에게 생소한 허브인데 음식의 향미를 더해주고 잡내를 제거 하는 역할을 하며 태국 음식에 많이 쓰이는 향신료다.

뽕양궁을 먹어본 사람들 중에는 간혹 레몬향 세제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원곡동의 한 태국음식점 사장님은 “뽕양궁을 처음부터 좋아하는 손님은 거의 없다. 하지만 먹다보면 자꾸 생각나고 다시 찾게 되는 음식이 뽕양궁”이라고 귀띔한다.

뽕양궁과 더불어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태국음식으로 팟타이와 솜땀이 있다. 팟타이는 태국식 볶음면, 솜땀은 샐러드로 태국을 가지 않더라도 안산에서 태국음식을 맛보며 음식문화를 통해 잠시라도 태국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재미 중 하나가 아닐까.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 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곳 사동, 방과후 마을돌봄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어떤걸까요? 사동 석호경로당 2층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 쉬기도 하고 놀이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올 6월 시작한 방과후 마을돌봄 공간에는 마을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선생님과 12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초저출산시대, 초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마을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사동주민들과 방과후마을교사들의 열정에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동 정화영 생생마을기자



## 2019년을 마무리하며 고잔동 화합의 문화체험 워크숍

한 해 동안 고생하신 고잔동 주민 유관단체 임원들과 문화마을 후원회, 마을신문 편집위원 분들이 대부분을 향해 문화체험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마을신문이 12월을 기점으로 발행된 지 100회를 맞아 앞으로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덕담도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고잔동을 위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모두 함께 뜨거운 박수로 오늘의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 고잔동 김희정 생생마을기자



##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는 꿈드림 친구들의 졸업식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꿈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무대를 열정적으로 보여주던 친구들의 모습, 춤을 추며 환하게 웃던 친구의 모습, 무대 준비 시간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유연한 진행을 하던 친구의 모습까지... 청소년들의 노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졸업식. 꿈드림 친구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손현지 학생기자



## 꿈을 이루어 주는 학교 경기 꿈의 학교

여러분은 올 한해 소망하던 꿈이나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셨나요?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저는 '예술의 포착 포터리'라는 도예프로그램을 수료했는데요. 상단 QR코드를 스캔해 자세히 만나볼까요?

• 윤지민 학생기자



## 안평의 꿈, 인왕산으로부터 전시회 22인 예술가에게 묻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남을 예술작품들을 전시회를 통해 감상하는 것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문화생활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 22인의 예술가에게 '인왕산은 ~이다.'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작품으로 표현해낸 테마의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아쉽게 전시회를 놓친 시민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 최하영 SNS시민기자



## 2019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영광의 대상은 안산시!

안산시가 사단법인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중앙부처,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안산시 블로그는 현재 누적 방문자수 600만 명을 넘어서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정소식을 전하는 안산시 공식 블로그,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오연화 SNS시민기자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 해양동

###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축제로 '흥겨운 해양동'



해양동 주민 등 200명은 '해양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이웃들이 펼친 화려한 공연과 송년 콘서트로 연말 분위기를 한껏 즐겼다.

12월5일 해양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와 2부 '주민화합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7팀이 참여한 1부 행사는 한국무용, 에어로빅, 통기타, 라인 · 스포츠 · 줌바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수강생들은 그간 갖고 닦은 실력과 재능을 이웃들에게 맘껏 뽐냈다.

이어 '아듀 2019 송년 콘서트'로 진행된 주민화합 한마당 2부 행사는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화려한 마술쇼와 귀에 익은 곡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 남성트리오 팝페라 가수 공연, 대중가요를 맛깔스럽게 들려준 혼성듀엣가수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공연 대미를 장식한 '음악마을'팀은 샹투스 '그대 있는 곳까지', 추가열 '소꿉같은 인생' 두곡을 수준 높은 통기타 연주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민들의 귀를 사로잡아, 올해 안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주민들은 어깨를 들썩이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한바탕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으며, 행사장 앞에 준비된 연필인물화와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둘러보고 수준 높은 작품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김명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나가기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선 해양동장은 "이번 공연에 도움을 주신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양동행정복지센터(031-481-5624)

## 본오1동

### 상록수보건소 연계 '찾아가는 암 예방학교' 운영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11월 28일 상록수보건소 방문보

건팀의 암 예방사업과 연계해 본오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9년 찾아가는 암 예방학교'를 운영했다.

작년까지 보건소에서만 진행되던 암 예방강좌를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암 예방학교' 형식으로 전환해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과 암 인식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2019년 찾아가는 암 예방학교'는 총 2회로 운영하고, 암 예방 영양교육과 운동교육으로 구성해 암 예방에 좋은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고 운동법과 스트레칭을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이번 암 예방학교를 수료한 한 어르신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강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며 "종종 이런 교육과 강좌들이 경로당에서 열리면 무료한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석 본오1동장은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시작으로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의 서비스 연계가 많아지면서 건강강좌와 보건서비스를 본오동 복지관, 경로당 등에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접근성을 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문의 : 본오1동행정복지센터(031-481-5660)

## 안산동

### 안산초등학교 통학로 신설 협의...내년 5월 개설



안산동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안산초등학교 일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신설을 위한 청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11월 20일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 행사는 지역구 시의원, 박완식 안산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명으로 구성된 학생대표단이 '안산초교 일대의 통학로 신설을 위한 청원서'를 직접 발표하며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안산초교 주변도로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신호등이 없어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의 불안이 지속돼왔다.

올해 초부터 통학로 신설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지역구 의원, 학교 관계자 등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 통학로 신설 협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안산초교 학생대표단에게 전달받은 청원서를 토대로 24년 숙원인 학교 앞 통학로 신설사업 진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인도 개설을 완료하겠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원중 안산동장은 "24년 안산동 숙원이었던 안산초교 일대 통학로 신설을 위해 힘써 주신 지역구 의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통학로가 설치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동행정복지센터(031-481-5459)



##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 백운동

## 신청사, 다양한 주민자치 꽃 피우는 문화 복지 공간으로 재탄생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공사 끝에 완공된 백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1(원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4,013㎡로 안산에서 가장 넓은 행정복지센터로 12월6일 개청식이 진행됐다.

신청사는 백운동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이 함께 있는 복



합청사로 1층에는 경로당이, 2층은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실, 3층은 문화·창작교실, 체력단련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골프, 중국어, 노래교실 등 새로운 주민여가프로그램을 2020년 1월부터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백운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백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 기념, 2·3층 로비 벽면을 이용해 20여점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며 미술전시회 ‘꿈과 희망을 열다’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안산시미술협회 및 초대작가 21여명이 참여했으며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개최된다. 전시회 개최로 백운동 주민들은 안예환 작가의 ‘지금 바로 여기-선인장’, 정하진 작가의 ‘그림에 수를 놓다’, 황미정 작가의 ‘요술 꽃 의자’ 등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일상생활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 문의 : 백운동행정복지센터(031-481-6706)

## 신길동

## 신길주민문화센터·신길작은도서관 합동 개관식 개최

신길동행정복지센터는 12월17일 신길주민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신길주민문화센터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7개월간의 공사를 마쳐 연면적 1천832.5㎡,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2층 신길동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문화센터, 4층은 신길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함께 개관식을 진행한 신길작은도서관은 약 7천400여권의 장서와 신문·잡지를 소장하고 좌석수 50석 규모로 평일 및 주말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금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그 간 신길동 지역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시흥시와 인접해 있으며, 완충녹지와 차도에 의해 단절되어 문화적 소외감을 느껴왔는데, 이번 신길주민문화센터 개관으로 문화적 갈증이 크게 해소될 예정이다. 김상열 신길동장은 “신길동 주민분들의 문화·소통의 보급자리가 생긴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길주민문화센터 건립을 계기로 주민편의 증진에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신길동행정복지센터(031-481-6660)



## 고잔동

## 고잔동, 겨울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고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정기회를 개최해 ‘혹한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12월 2일부터 2주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월 1차 조사(기초연금 소득인정액 ‘0’인 독거가구)이후 2차(독거 중증장애인), 3차(하절기 복지위기가구)에 이어 올해 4번째 추진하는 사각지대 발굴 조사로 대상은 전기요금 등 공과금 체납가구 및 지층거주자 70가구다. 조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해당 가구를 방

문해 주거환경 및 복지욕구를 파악한 후, 방문조사표를 작성해 동 맞춤형복지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로 위기상황이 확인된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상황에 따라 공적지원신청, 긴급·무한돌봄 지원, 후원품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연계 등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임향미 협의체 위원장은 “이른 추위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은 더 움츠러 들 것 같다”며 “고잔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체가 더 힘을 내서 숨어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희망의 온기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고잔동행정복지센터(031-481-6335)

##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경기도 콜센터 120 · [복지로도움요청](#) 또는 스마트폰 앱

지원내용 |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등





##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겨울동화 속으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겨울축제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했다. 지난 12월 7일 안산문화광장,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겨울 시즌 프로그램 윈터 원더랜드(Winter Wonderland)가 열렸다. 지난 해 처음으로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겨울 시즌 프로그램을 선보인 안산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 올해에도 겨울 시즌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겨울과 빛을 테마로 한 이번 시즌은 거리 무용 · 음악 공연 · 미디어 아트 · 크리스마스 마켓 · 예술 불꽃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안산지역의 청년 예술가, 서울예대 학생들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내년 2020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취지를 품고 있다.

거리 공연의 품격을 높여준 전문 발레단의 공연과 현대무용, 스트리트댄스, 마임, 버스킹, 창작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과 오픈마켓이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산문화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동화나라를 선사했다.

차이코프스키의 3대 대표 발레인 백조의 호수를 패러디하여 친숙하고 신선한 창작 작품을 선보인 정형일 Ballet Creative와 김문주 · 김덕영의 공연 '완전하지 않은 합의 연주', 차가운 거리에 열기를 불어넣어 준 마블러스모션 & KJ House dancers의 스트리트 댄스, 안산을 뮤지컬에 담아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들의 뮤지컬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됐다. 이날 광장에는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했다. 안산문화재단 운영팀은 해가 지고 더 쌀쌀해진 광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핫팩과 방석을 제공했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던 청소년 관객은 "올 여름에 참여했던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당연히 겨울시즌 프로그램도 좋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친구들과 같이 왔다. 기대했던 만큼 신선한 공연들이 많았고 거리

에서 접한 현대무용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많아 더 흥이 나는 것 같다. 내년 5월에 펼쳐질 국제거리극축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겨울은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설렘과 따뜻한 기대를 준다. 이번 겨울축제가 안산문화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제의 마지막은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수놓은 화려한 예술 불꽃 공연으로 마무리 됐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겨울 시즌 프로그램은 <생생안산溫 빛축제 - Let it 빛>의 점등식과 함께 진행돼 LED 전구로 만들어진 다양한 구조물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ansan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4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와~ 스타디움

# POP-UP 얼음/눈 썰매장

잊혀져 가는 동절기 놀이시설 POP-UP 얼음/눈 썰매장에서 올 겨울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안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기간** 2019.12.20.(금)~2020.1.19.(일)

**운영장소** 와스타디움 중앙광장 옆

**문의전화** 031-481-4802 / 4842~3

**오시는길** ● 단원구청

**운영시간** 10:00~17:00

**휴식시간** 11:50~13:00









# 안산시의회 3개 상임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 현장서 사업에 대한 이해 높이고 예산 반영 적절성 검증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2월4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 위원들은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조성공사 현장(단원구 선부로 312)과 안산시 청년큐브 '씨네프 안산'(단원구 원포공원1로 59), '안산골프연습장'(단원구 동산로 181)을 잇달아 방문해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첫 방

문지인 내일스퀘어 안산 공사 현장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의 진척 상황과 어린이집이었던 건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어 씨네프 안산에서는 시설 현황 파악과 함께 입주 기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골프연습장으로 이동해서는 저수조의 노후 정도를 파악하는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명훈)도 같은 날 단원구 범지로 141번길 30에 소재한 '쥬신동아전자'와 단원구 원초로 80의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각각 미세먼지 집진 시설의 효과성 분석과 최종중발달장애인 긍정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 청취 등을 실시했다. 위원들의 신동아전자 방문이 추후 지역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집진시설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자리였다면 안산시장애

인복지관 방문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사업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위원들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 위원들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된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단원구 초지동의 화랑유원지를 찾았다.

유원지 내 중심광장과 호수, 자작나무 숲 조성지 등을 차례로 돌아본 위원들은 경관 조성을 위한 조명 설치 시 눈부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개선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측에 당부했다. 아울러 화랑유원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다.

#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 처리

##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안건 의결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12월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21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11월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사 보고를 실시한 뒤 상임위 안대로 15건은 원안 가결, 6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심사 보고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바우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

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통합상표 사용 권한 사항 등을 명시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와 관련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을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명훈)는 어린이 체험박물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사항을 규정한 '안산시 어린이 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6건을 원안 가결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의 경우 수도 시설과 인접해 설치한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규정 등을 정비한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한 반면, 장애인 복지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사항 등을 담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2건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 부문 별로 심의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쳤으나 상임위의 결과 동일하게 원안 가결됐다.

# 의안 심의 결과(제 258회 제 2차 정례회)

총 : 21건(원안가결 16, 수정안가결 5)		
소관	의안명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기획행정위원회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가결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안가결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문화복지위원회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문화복지위원회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출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도시환경위원회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안, 달미, 별★빛, 신길)	원안가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공통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공통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2020년 경자년 쥐띠 해는 번영의 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쥐띠 해다. 쥐는 행동이 민첩하고 총명해 다산과 부귀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왔고, 예로부터 쥐띠 해는 번영의 해로 일컬어졌다. 2020년이 어떻게 해서 경자년이고 쥐띠 해가 되는지 알아보자. 선인들은 우리가 밭 딛고 살아가는 땅을 하늘의 기운을 받는 정도에 따라 열 두 동물 십이지(十二支)로 분류했다. 쥐(자·子), 소(축·丑), 범(인·寅), 토끼(묘·卯), 용(진·辰), 뱀(사·巳), 말(오·午), 양(미·未), 잔나비(신·申), 닭(유·酉), 개(술·戌), 돼지(해·亥)다. 하늘의 기운도 태양의 위치에 따라 동·남·중앙·서·북을 열 개의 기운—甲(갑)·乙(을)·丙(병)·丁(정)·戊(무)·己(기)·庚(경)·辛(신)·壬(임)·癸(계) 십간(十干)을 두 개씩 짝지어 다섯 방위로 표현했다. 동쪽 갑을은 나무를 상징하며 청색, 남쪽 병정은 불이며 붉은색, 중앙 무기는 흙으로 노란색, 서쪽 경신은 금속으로 흰색이고, 북쪽 임계는 물로써 검은색이다. 십간과 십이지가 차례로 짝을 이루면 갑자년에서 시작해서 을축·병인, 정묘년으로 이어지고 임술·계해년으로 끝나며 60년이 걸린다. 그래서 61세 되는 해가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갑·환갑이다. 2020년 경자년은 흰색 쥐의 해가 된다. 쥐띠 생 안산시민 네 분의 새해 소망을 들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김종성**  
1948년 무자생  
성포동

나이 73.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언제나 조심스럽고 한 마디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누구의 등에 꽃히는 비수가 되고, 내 몸을 자르는 도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조심스럽다. 새해의 소원. 삼시 세 끼 굶지 않고, 입은 웃이 사는 집이고 자는 방이 아니니 무얼 더 바라리오. 일구월심으로 손 모아 비는 일은 오직 하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것이다.



**김점선**  
1960년 경자생  
반월동

새해 환갑이다. 덩으로 사는 인생이다. 경자년 쥐띠 해 새해소망은 사위를 보고 싶다. 딸들아, 부디 새해에는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함께 추구해갈 배필을 만나시오. 그래서 부모 품을 떠나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다오. 무탈하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엄마는 봉사활동 계속할게. 너희들이 살아가길 세상 행복하게.



**성영순**  
1972년 임자생  
사이동

새해소망은 우리 가족을 위한 큼지막한 집을 장만하는 일이다. 그동안 남편과 맞벌이하며 열심히 노력해왔다. 아이들도 바르게 성장하며 제 몫을 해주는데 무척 고맙다. 애들아, 새해 원하는 데 취직하고, 좋아하는 공부 계속하고, 상급학교 진학해서도 잘 적응하길 바란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요.



**이지수**  
1996년 병자생  
사이동

졸업 작품을 잘 하고 싶다. 나의 진로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다행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정진해왔다. 그동안 내가 꿈꿔오고 연마해 온 실력을 온전히 이 작품 속에 녹여내고 싶다. 엄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책 읽는 안산 / 1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출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행복하게』

아동



### 꼬마 여우의 따뜻한 겨울

저자 티머시 넵맨 / 출판사 사파리

다가올 미래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교훈뿐 아니라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진실한 우정에 대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또한 따뜻한 집과 잠자리, 먹을거리도 없는 꼬마 여우가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꺼이 나누는 모습을 보며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행복한 나눔에 대해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



###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저자 곰돌이 푸 /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기분이 우울해질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그냥 배가 고픈 걸지도 몰라.” 딱딱한 현실 속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말들이다. 쉽지만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던, 그 따뜻하고 편안한 위안이 이 책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고민이라면 이 책을 펼쳐보자. '나'를 잃어가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나'를 위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인



### 참 소중한 너라서

저자 김지훈 / 출판사 진심의꽃한송이

내가 왜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소중한 것에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답답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지금이 힘든 당신에게 힘들지 말라고 막연하게 위로를 건네기보다 지금의 아픔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변할 수 있도록 가슴 절절한 위로의 말들을 전해준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가장 나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책을 통해 상처받았던 지난 시간들을 위로받고 더욱 높아진 자존감으로 내일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 겨울밤의 동화

장독대에 내다놓은 팔죽  
식어가는 시간  
눈꺼풀이 내려앉은 아랫목에  
엄마와 마주잡은 실타래 파르르 떨며 풀린다  
실패를 전 엄마 손 능숙하게 팔자를 그려  
마치  
지휘하는 음악 선생님 같다

팔 저림 끝에 실 뭉치 두꺼워지고  
나는 부엉이처럼 속눈썹을 치켜세운다  
감아도감아도 긴 겨울밤  
엄마는 흰 무명치마 펄럭이며  
살얼음 진 팔죽을  
꺼내 온다

• 이연순(상록구 해양동)



전문가  
기고

## 외국인의 슬픈 사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피해자는 베트남 여자로서 한국의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한국말도 서툰 피해자에게 갖은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지옥 같은 날들을 무려 15개월이나 견디다가 결국 가출하였다. 한국말이나 한국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이혼하지도 못하고, 폭행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가출한 것이다.

피해자는 한국인 남편의 비협조로 이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 남자를 만나 동거하였는데, 동거 중이던 베트남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였다. 피해자와 동거하던 베트남 남자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출국 당하였다.

그 베트남 남자는 출국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자신의 아들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한국인과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출국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동거하던 베트남 남자가 강제출국 당한 후 혼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안산시에 있는 안산이주민센터 코시안의 집에 의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안산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한국인 남자와 법률적으로 이혼하였고, 그 후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여권은 한국인 전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았고, 아들은 한국인 또는 베트남인 어느 쪽으로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출국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자신과 아들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베트남대사관은 피해자의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으나, 아들은 한국인과 법적으로 혼인 중에 있을 때 태어났으므로 베트남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베트남대사관은 한국인 전 남편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이 확인된다면 아이의 여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한국인 전 남편에게 연락하여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유전자 검사에도 응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한국인 전 남편은 확인서나 유전자 검사 등 어떠한 협조도 해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당시 한국나이로 3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는 엄마와 함께 단칸방에서 안산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피해자는 한국어에 서툴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다, 한국에서는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사용할 일도 거의 없으므로 하루 종일 말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 어린 아이는 엄마로부터 가장 많은 말을 배우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거의 말을 않고 지내다보니 아이 역시 말을 배우지 못하였다. 아이는 자신의 집에 종종 찾아오는 안산이주민센터 사람들에게 겨우 '안녕하세요', '바이 바이' 정도의 말만 할 뿐, 다른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국적이 어떠한, 한참 자라면서 말과 행동을 배워야 할 어린이가 이러한 상황에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인권과 문명국가임을 자부하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거듭된 협조요청으로 피해자와 아이는 간신히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일이다

• 김성천 변호사



독자  
투고

##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계절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더운 여름 보내고 나면 잠깐 사이 싸늘한 공기가 턱 밑까지 올라오곤 한다. 여름옷 정리하고 가을이라 품 좀 내보려 얇은 외투 꺼내 입어보고 있을라치면 어느새 내 몸은 두꺼운 패딩점퍼로 휘감아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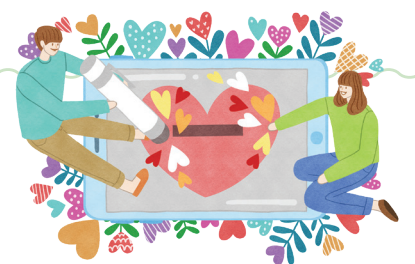
내놓았던 두 손은 이미 호주머니 속에 움츠려 나오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봄, 가을은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저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바깥보단 따뜻한 집으로 발걸음 종종거리며 걷는 사람들... 저마다 이젠 겨울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한다.

직장 동료들과 겨울에는 보일러를 몇 도로 올려놓는지, 전기장판은 구입했는지 등 동절기 대비 난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 불현 듯 어려운 이웃들이 떠오른다. 항상 이맘때면 생활이 어려워 추위에 떨고 겨울을 지내는 분들, 난방은 고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나오는 장발장 아닌 장발장 이야기를 요즘 마스크에서 종종 듣곤 한다.

우리의 생활은 넉넉해졌는데 아직도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을 생각해 보며 잠시 행복에 겨워 떠드는 대화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건 나만의 느낌일까?

안산시에서는 동절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파대비 집중 방문건강관리 지원,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점검이나 지원으로 무조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건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얼마나 갖는 것이냐 일 텐데 어려워도 표현하지 못하는 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분들이 도와 달라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계절은 어김없이 또 바뀔 것이다. 이 겨울 보내고 난 후 아픈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랄뿐이다.

• 정완구(상록구 본오동)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PLAY



SHOP FOOD LIVING FASHION



**"이제는 성인" 고3 학생들의 전통 성년례**  
고3학생들의 전통 성년례

OBS 경인TV (12월5일)



**안산행복예절관, 찾아가는 성년례 진행**  
안산시 행복예절관은 지난달 19일부터

한빛방송 (12월6일)

안산시 찾아가는 성년의례식 진행



**국적 없이 버려진 830g 미숙아...온정의 손길**

KBS (12월12일)

국적 없이 버려진 830g 미숙아...온정의 손길



**안산시 '친환경 종이팩 수돗물' 인기**

SBS (12월12일)

안산시 친환경 종이팩 수돗물 인기

## 2020년 설날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중지 안내

설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업체 휴무 등으로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쓰레기(음식물 포함) 수거가 중지됩니다.

설 연휴	1.24(금)	1.25(토)	1.26(일)	1.27(월)
수거 여부	정상수거	수거중단	수거중단	정상수거

※ 수거중지 기간 중 재활용품 수거도 중지됨.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0)

## 안산시 자전거 자가 정비소

안산와스타디움	화정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산우체국
금영유료주차장	고잔역	금영유료주차장	대덕프라자
			고잔 푸르지오 4차 아파트

- ◇ 대상 : 방문객 누구나
- ◇ 내용 : 펌크 튜브, 타이어교체, 공기압 등
- ◇ 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오후1~2시 제외)
- ◇ 방법 : 1.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본인이 지참  
2. 이용 장소 내방 및 이용대장 기재  
※ 공구 : 현장이용만 가능. 수리 후 반납
- ◇ 문의 : 폐달로(1544-6339), 안산도시공사(031-481-4956)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참조 또는 1577-2514(031-501-0340, 0033)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2019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전 <흠어진 생각, 조합된 경험>



- ◇ 일시 : 2019.12.13.~2020.3.1. 오전10시~오후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 장르 : 설치미술, 회화 등
- ◇ 장소 : 단원미술관 1·2관
- ◇ 관람료 : 일반 - 2천원 (안산시민 50% 할인) 미취학 · 65세 이상 · 장애인 - 무료
- ◇ 문의 : 단원미술관(481-0505)

## 한양대학교 ERICA 사회교육원 컴퓨터특강 수시모집

- ◇ 일시 : 2019.12월~2020.2월(과정별 상이)
- ◇ 과목 : 3D 프린팅, 유튜브 크리에이터,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컴퓨터활용능력(2급), CAD실무능력평가(2급),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 ◇ 수강료 : 각 과정 9만원
- ◇ 문의 : 전화(400-5843~6), 홈페이지(cec.hanyang.ac.kr)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으세요

- ◇ 대상 :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 소유주
- ◇ 신청기간 : 2019.12.1.~2020.1.31.
- ◇ 전화신청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888) 또는 안산시 콜센터(1666-1234)
- ※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생한 일자리 정보!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가 도와드립니다!

###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안산919취업광장

- ◇ 일시 : 2020.1.3.(금) 오후2시~4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주최/주관 :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 ◇ 일시 : 2020.1.20.(월) 오후2시~4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주최/주관 : 안산시 / 안산고용복지+센터
- ◇ 내용 : 구인 · 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 (031-481-2277/2919)



##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이렇게 추진합니다

안산시는 2020년 1학기부터 단계별로 전국 시(市) 가운데 최초로 대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안산시에 3년이상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 02 성실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F학점이나 12학점 미만 이수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학습의지가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01 더 필요한 곳에 우선 지급합니다

국민기초 가정, 장애인 학생, 다자녀가정 셋째이상 학생이 2020년 지원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2단계, 소득 6분위까지의 가정은 3단계입니다. 장애인 학생 및 다자녀가정 셋째이상 학생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1차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03 세금을 더 내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은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가 세금 부담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